

편의점 흥기 강도 검거

전국 돌며 22차례 2천여만원 훔쳐

대도시 역과 터미널 주변의 편의점만 골라 강도짓을 한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17일 순남으로 가장해 편의점에 들어가 흥기로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빼앗은 이모(29·주거부정)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F마트에 들어가 흥기로 종업원 조모(여·22)씨를 위협, 현금과 상품권 등 36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에서 지난 10월부터 22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이나 열차역 주변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뒤, 곧바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힌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만든 수배전단 2만 여장을 배포했으며, "경남 진주시 장대동 G편의점 앞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에 들어가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는 10여 건이 넘으나 이씨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것은 2건 뿐"이라며 "광주에 또 다른 편의점 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고흥서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서쪽 2.3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1.05t) 선장 김모(58)씨가 김 양식장 그물에 죽은 채 걸려있는 밍크고래(사진)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6m ▲몸 둘레 4m ▲무게 3.5t 가량으로 몸에 부분적으로 상처가 있으나 대체로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죽은 밍크고래를 고흥 녹동항으로 옮겨 자살류나 낚시 등을 사용해 고의로 포획한 흔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전남 동부 해역에서 그물 등에 걸려 발견된 고래 6마리 중 밍크고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심 친절 버스로 거듭나야

이젠 '혈세 버스'... 시민이 주인

승차 거부·급정차·급회전 그만 인사하기 등 획기적 서비스 개선을

오는 21일부터 광주 시내버스가 새롭게 달린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내버스 운영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노선개편·버스요금 인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등 대중교통체계가 크게 바뀐다.

달라진 대중교통체계의 성공을 위해 버스업계·시민·행정당국이 노력해야 할 점들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주부 박모(여·32)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경신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양산동 집에 가는 버스는 35번, 29번, 19번, 16번 등. 5분 뒤, 멀리서 35번 버스가 오는 게 보였다. 세워달라며 손을 흔들었지만, 버스는 '황'하고 지나쳤다.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못됐겠지"라며 마음을 달랠었다.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여 분 뒤, 19번 버스를 타는 데는 성공했지만, 광주 박물관을 지날 때쯤 버스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칠 뻔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광주시청 교통민원창구에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이다. 광주시청에 올해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489건 가운데 불친절 관련 민원은 43.4%(212건)로 가장 많았다.

승강장을 그냥 통과(118건)하고 난폭 운전(54건)을 하거나 승하차를 거부(33건)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요금 부당청구(3건)하거나 도중에 내리라고 한 경우(5건)도 있었다.

시민들은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더 이상 버스기사들의 무례함과 불친절을 참지 않겠다"며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보다 친절한 시내버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자체 친절 교육에 나서는 등 서비스 개선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창운수를 시작으로 동화·천일·삼아·현대·대진·삼양·대광·대원·동양 등의 회사도 노사가 함께 자체 친절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 버스운송사업조합' 노재숙(61) 전무는 "아침 저녁으로 5~10분 정도 회사별로 인사 잘하기 교육을 하고, 친절하게 응답하지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친절한 직원에게는 상을 주고, 불친절한 직원은 강력히 징계하도록 하는 등 각 회사별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현대교통 소속 버스기사 130여 명이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남구 송하동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2층 교육실에서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친절인사 연습을 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초등학교생 88명 식중독

2개 학교서 생굴 급식 ... 북통·구토 증세

광주시내 2개 초등학교 학생 88명이 학교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들 2개 초등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초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날 음식을 먹이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어기고 생굴을 급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역학조사 결과 학교급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학교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1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시 북구 문효초등학교 학생 77명이 급식으로 나온 점심을 먹고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9명은 증상이 심해 15일 결석했으며, 이 가운데 증상이 더욱 심한 4명은 16일까지 이를 연속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광주시 남구 무학초등학교 학생 11명도 지난 14일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 조치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시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이들 두 학교는 학교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 발생 당일 생굴과 무를 무친 반찬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지난 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날 음식을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두 학교에서 날 음식의 생굴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양 컨부두 앞 교통사고

조선족 4명 사망 2명 다쳐

지난 16일 밤 9시50분께 광양시 중동 컨테이너부두 전용도로 입구에서 조선족 6명이 타고 가던 '76지10××호'(운전자 이모·37) 이스타나 승합차가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씨와 함께 타고 있던 김모(36)씨 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백모(36)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성가톨릭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어 연변이 고향인 이들은 지난달 말께 E전선사와 계약을 맺고 입국, 광양 컨테이너 부두 내 도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나원침 (7004)



평중선도지의 중심특권을 누리는데 3.636 회대단지!
평면면적 80~100㎡ 광역 단지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 062-367-9000

신문기사외 광고에 대한 불만
즉제불만처리부임이 규합해 드립니다.
부추어드릴만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ac.or.kr
한국신문유통촉진법

강원래 6년만에 또 교통사고 '악몽'

성남



○6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재기에 성공한 가수 강원래(37·사진)씨가 또다시 교통사고로 부상.

○강씨는 17일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청소년축제 참석을 위해 직접 차를 몰고 가다가 낮 12시30분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충남 금산군 부리면 지점에서 빙관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강씨의 측근은 "강원래씨는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다. 내가 걱정하니까 문자메시지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I ♥ Dongshim

... (Detailed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in Korean) ...